



이던 프리미엄 전기요 '글루바인'

# 임산부가 즐겨찾는 전기요 ... 전자파 차단·화재방지

디자인·안전성 강화한 글루바인  
전원 15시간 뒤 자동 차단기능  
물세탁 가능·돌돌 말아 보관  
중국·베트남 등 해외 수출 강화



조재홍 이던 대표가 전자파 차단 등 글루바인 전기요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던 제공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 쌀쌀한 계절이다. 겨울을 앞두고 전기요를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전자파 걱정 없는 전기요'로 입소문난 제품이 있다. 중소기업 이던이 제조하는 프리미엄 전기요 '글루바인'이다. 글루바인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따뜻한 와인'을 뜻하는 독일어다.

◆전자파 차단하고 안전 설계 강화  
조재홍 이던 대표는 "전자파, 화재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제품을 까다롭게 고르는 임산부들이 글루바인 제품을 많이 쓴다"며 "전자파를 차단하고 화재가 나지 않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등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루바인 전기요는 기존 저가 전기요와 달리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던은 2006년 전기요에 들어가는 열선의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술을 특허를 받았다. 열선부터 전자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자파를 원천 차단했다. 그 결과 2011년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전자파 차단 인증도 받았다.  
작동 후 15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

원이 차단되는 안전설계 기능도 적용하고 있다. 전기요 전원을 끄지 않고 집을 나와도 알아서 꺼지기 때문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 타이머로 작동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최대 12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다.  
물세탁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던은 글루바인이라 브랜드를 내놓기 전인 2002년 열선과 솜을 고정시키는 공법으로 물세탁이 가능한 전기요를 선보였다. 열선과 솜이 흐트러지지 않게 압착하고,

접속부에 방수 기능을 강화했다. 방수용 열선을 사용해 제조한 전기요는 '물세탁할 수 있는 전기요'로 소문났다. 당시 이마트에서만 7만여 장 팔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 기술력을 활용해 글루바인을 만들고 있다.  
◆디자인 고급화하고 보관도 손쉽게  
2001년 설립된 이던이 글루바인이라 브랜드를 내놓은 것은 2011년이다. 조 대표는 "추운 지역에서 따뜻하게 데운 와인으로 몸을 녹이는 것처럼 전기요를 사용해 겨

울을 따뜻하게 보내라는 의미에서 글루바인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전기요 시장은 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난립한 레드오션이었다. 조 대표는 "예쁜 이불 같은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대신 가격은 상대적으로 고가로 책정했다. 프리미엄 모델인 '글루바인 럭셔리 프리그' 터블의 소비자 가격은 13만5000원. 자체 디자이너를 고용해 원단에 고급스러운 패턴을 입혔다. 그동안 전편일률적인 모습이었던 온도조절기는 자체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만들었다.

전기요를 쓸 때 골치 아픈 부분인 보관 문제도 해결했다. 열선이 꺾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돌돌 말 전기요를 넣는 보관 가방까지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 고장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얘기다.  
이던은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이다. 미국 대만 호주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1위가 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thebest@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 K바이오 '유종의 미' 거들까

업계 항방 가를 5대 이주

연내 미임상 3상 결과 3건 더 공개  
셀리버리, 기술수출 논의 가속화  
헬릭스미스, 임상오염 조사 발표

메이존	단심실증 치료제 '유데나필' 미 임상 3상 결과 발표(11월)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미 임상 3상 결과 발표(12월)
한울바이오파마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 미 임상 3상 결과 발표(12월)
셀리버리	글로벌 제약사가 파킨슨병 신약 기술이전 총액 제시(12월)
헬릭스미스	'엔젠시스' 미 임상 3상 임상오염 조사 완료(12월)

최근 신라젠, 에이지엘비, 헬릭스미스 등 주요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연달아 발표되면서 바이오 주가가 크게 요동쳤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이슈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 바이오기업 세 곳의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더 나온다. 메이존의 단심실증 치료제 '유데나필'의 미국 임상 3상 결과는 다음달 공개된다. 지난 5월 임상을 마쳤지만 이번 임상을 지원한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메이존을 대신해 미국심장학회에서 3상 결과를 발표한다. 단심실증은 선천적으로 심장의 심실이 한 개만 있는 소아 희귀질환이다. 유데나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 때문에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심사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미국 임상 3상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비보존은 지난 5월부터 복부성형 수술을 받은 307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 3개월 만에 마쳤다. 임상에서는 오피란제린을 수술 시작 전에 투여해 수술 통증과 수술 후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투약을 최소화하고 되 유허에는 일반의약품인 타이레놀만큼으로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비보존 관계자는 "오피오이드 오남용으로 미국에서만 매년 4만여 명이 사망한다"며 "수술 후 1차 통증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오피오이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울바이오파마가

대용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의 미국 임상 3상 결과도 12월에 나온다.

기술수출에서도 결실이 맺어질지 주목된다. 셀리버리가 개발 중인 파킨슨병 신약후보물질(파이프라인) 'iCP-Parkin'의 기술수출이 연내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 한 곳이 12월에 기술이전 대가 총액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제약사와는 올초부터 웨장암 치료제 'iCP-SOCS3'의 기술이전을 협의하고 있다. 이 중국 제약사는 영장류 독성시험을 시행해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셀리버리는 지난 7월 독성시험을 완료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물질의 독성이 체내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를 다시 요구 받았다. 셀리버리는 스페인의 한 비임상 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달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 임상 3상에서 임상 오염이 발생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헬릭스미스는 연내 임상 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가 임상 수행 역량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번 사태로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확실히 규명되기 전까지 원인을 특정하기 힘들지만 임상 도중 임상 수행수탁기관(CRO)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 자동차 수입으로 영역 넓히는 바디프랜드

(세계 3대 하이퍼카 코닉세그)

## 뉴스카페

코닉세그 안마의자도 개발 예정



바디프랜드가 세계 3대 하이퍼카(슈퍼카를 넘어서는 초고급 고성능 자동차)로 꼽히는 스웨덴의 '코닉세그(사진)'를 국내에 들여온다. 코닉세그와 손잡고 안마 의자도 개발할 계획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18일 서울 논현동 '바디프랜드라운지'에서 코닉세그 국내 론칭 행사를 열고 코닉세그의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

과거나, 부가티와 함께 세계 3대 하이퍼카로 꼽히는 코닉세그의 가격은 수십억 원대다. 바디프랜드는 딜러십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닉세그를 유통하게 됐다. 바디프랜드 라운지S는 코닉세그 전시판매장으로 활용된다. 자동차

가 고가인 만큼 예약, 신분 확인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입장이 가능하다. 첫 판매 차량은 지난 3월 제네바 국제모터쇼에서 선을 보인 '레스코다'. 이 하이퍼카는 최고속도 483km, 최대 출력 1600마력을 보유한 코닉세그의 최신 모델이다. 에어로 다이내믹 설계로 다운포스(차를 노면으로 하향하게 하는 힘)를 1400kg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 파워트레인으로 V8 5.0L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인 제로백은 2.7초다. 판매 가격은 40억원으로 알려졌다. 코닉세그는 1994년 크리스티안 본 코닉세그가 설립한 하이퍼카 제조사다. 뛰어난 성능과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바디프랜드는 코닉세그의 독특한 형상을 딴 '코닉세그 안마의자'를 개발할 계획이다. 강력한 퍼포먼스, 공기역학적 디자인 등을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앞서 람보르기니와 손잡고 '람보르기니 안마의자'도 개발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소비자를 열광시키는 코닉세그의 하드웨어 기술력과 디테일을 적용해 헬스케어 기기를 진화시키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럭셔리 헬스케어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캠시스, '썬비-C' 출시 2인승 초소형 전기차 마케팅

카메라 모듈업체 캠시스가 초소형 전기차 '썬비(CEVO)-C'를 출시하고 본격 마케팅에 나섰다. 캠시스가 자체 개발한 이 전기차는 국내 기후와 지형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험준한 경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부스터(전압을 높이는 변압기) 및 디스크 브레이크, 경사로 밀림 방지 알고리즘 등을 기본 사양으로 갖췄다. 국토교통부 안전인증 및 환경부 환경인증과 함께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인증까지 모두 통과했다. 캠시스는 CEVO-C 1호 차량을 전기차 충전인프라 정보제공 업체인 타디스 테크놀로지사의 이용권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영태 캠시스 대표는 "정부 기관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전기차 전용부품 3년 또는 6만km, 자체 및 일반부품 2년 또는 4만km 등 업계 최장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가 수상 기업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지속가능성대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지수(KSI)를 평가해 시상한다. 앞줄 왼쪽부터 유한제 SK주식회사 부문장, 유엔테 모두투어네트워크 사장, 이병철 신한은행 부행장, 신정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기영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사,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심의위원,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양원준 포스코 전무,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이현준 쌍용양회공업 대표, 김해숙 유한킴벌리 전무, 이용석 포스코인터내셔널 전무. 한국표준협회 제공

# D-DAY를 위한 멘탈관리 솔루션

불안한 마음이 D-DAY를 망쳐버리지 않도록 동의보감 속 한방 신경안정제 천왕보심단으로 불안·초조·불면·건망을 다스리세요

**안정이 필요할 때 — 삼진제약 안정액**

초조

불안

불면

건망

목마름

신경쇠약

변열

숨참

\*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19-1505-001400**